

정서인식,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능력과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유능감

한 유 진(명지대학교 조교수)

연구목적

아동기는 새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나가는 시기이다. 정서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맞추어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은 이 시기의 주된 발달 과업이며 사회적 관계 맺기에 기초적 능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능력은 아동기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변수인 공격성 및 또래유능감과 관련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초등4-6학년 293명(남142, 여151),

연구도구: 정서인식은 Penza-Clyve와 Zeman(2002)의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에서 정서인식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표현 도구는 선행연구(Penza-Clyve & Zeman, 2002; Zeman, Shipman, & Penza-Clyve, 2001)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정서 표현 동기, 슬픔과 분노의 억제 및 역기능적 표현을 측정하였다. 정서조절 도구는 Underwood(1997)의 에피소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정서조절능력과 정서조절 결과에 대한 예측을 측정하였다. 또래유능성 척도는 Inderbitzen과 Foster(1992)의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을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공격성은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욕하고, 때리고, 잘 싸우는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1.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 수준에 따라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F=10.787, p<.001$), 역기능적으로 표현하였다($F=4.664, p<.01$).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은 낮게 나타났으며($F=4.056, p<.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결과 예측능력도 낮게 나타났다($F=3.122, p<.05$). 정서인식이나 슬픔의 정서표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또래유능감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유능감이 높은 아동들은 정서에 관한 인식 능력이 높았으며($F=9.217, p<.001$),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도 높게 나타났다($F=4.665, p<.05$). 슬픔과 분노의 정서표현에서는 또래유능감이 높은 아동들은 슬픔의 정서는 더 많이 표현($F=4.864, p<.05$)하나, 분노의 정서는 억제($F=3.307, p<.05$)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또래유능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F=3.494, p<.05$), 정서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를 정확하게 예측($F=12.643$, $p<.001$)하였다.

결론 및 의의

이 연구는 정서적 능력을 정서인식,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능력으로 세분화하여 아동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 변수인 공격성 및 또래유능감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아동기의 정서능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